



금수강산

4

주체111(2022)
루계 제392호 월간



표지: 만경대 고향집뜨락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한 채증동포들.

고향집에는 해방전 암담하던 세월의 모진 가난속에 살면서도 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 오신 만경대일가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4



32



58



64



7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돛에 즈음하여 2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 4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8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12

자주, 자립, 자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16

우리 수령님 22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28

조국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한평생 32

자주시대를 빛내이시어 40

매혹과 흠모는 지경을 넘어 42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예술축전 46

수기
 45년전의 봄날을 그려볼 때면 52

도서 《인민들속에서》 53

새 무장력의 탄생 54

멸사복무를 당풍으로 58

베어링생산자들 62

평양 《국제부녀절50주년》유치원 64

민족의상제작가들 68

대중금양봉사기지 청류관 70

조선속담
 떡과 관련한 속담 70

야화
 황희와 농부 73

상식
 룡화석포 73

조국의 품에 안겨
 애착 74

민족과 운명
 통일주체작곡가 윤이상 76

편집: 서철남, 최은혁

1-22804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창건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조선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을 세워주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있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

해방전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소박한 농가. 이 수수한 초가집에서 조선민족뿐 아니라 세계가 우러르는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만경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곳이며 조국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만경대는 예로부터 평양8경과 함께 명승지로 이름난 고장이다.

만경대두리에 있는 높고낮은 봉우리가운데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만경봉이라 부른다.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일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그 이름을 만경봉이라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아름다운 만경봉의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고향집에서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딸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조선민족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주체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만경대고향집은 당시 조선의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초가집이다.

고향집에 보존되어있는 가난의 흔적이 력력한

망돌과 쭈그러진 독, 덧때고 또 때여 제 모양을 찾아보기 힘든 물동이, 여러가지 농기구들은 온종일 등뼈가 휘여지도록 일하신 일가분들의 고된 생활과 로동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 고향집주변에는 군함바위와 군사물터 등 유서깊은 곳들이 있다.

대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찍부터 부모님들의 혁명적인 교양과 일체의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신음하는 인민들의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반일애국의 큰뜻을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4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고향집을 떠나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그때로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시였고 드디어 20년만에 고향집을 찾으시였다. 하지만 이 집의 사립문을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아래방



부엌(왼쪽)과 일가분들께서 리용하시던 농기구들의 일부(오른쪽)



위한 혁명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치시였다.

하기에 이곳을 방문하였던 해외동포들은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치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경모하여 언제나 만경대고향집을 먼저 찾는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의 큰뜻을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외국의 인사들과 벗들도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지라고 하면서 이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그토록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고귀한 생애를 다 바치신 그이의 위대성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조선혁명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도 이바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과도 잇닿아있는 성지라고 토로하였다.

참으로 만경대고향집은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조선혁명의 성지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일가분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집으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고있다.

* * *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지난 20세기초엽 조선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1905년-1945년)으로 짓밟힌 조선은 중세기적암흑천지, 인간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인민은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의병투쟁과 독립청원도 해보았으나 차례진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침략자의 야수적인 탄압과 략탈, 렬강들의 랭대뿐이었다.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혁명의 큰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혈전의 수십만리를 헤치시어 마침내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였다.

조국해방의 그날 방금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조건항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고, 것처럼 기승을 부리던 일제가 드디어 저들의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 간고하고도 성스러운 항일대전의 만단사연이 어찌 갈마들지 않을수 있었으랴.

제국주의강적인 일제와 조선인민과의 항일대전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준엄한 혈전이였다.

일제는 수많은 비행기와 대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가지고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면서 미쳐날뛰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능히 없애버릴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하기에 련이은 죽음,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패배만을 남기면서도 일제는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전멸시켜보겠다고 발악한것이다.

그러나 승리한것은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한 조선인민혁명군이였고 패배한것은 살륙,

파괴, 《토벌》에 매달리면서 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알보며 《무적황군》의 위세를 뽐내던 일제침략자들이였다.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것은 항일의 피어린 20성상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 단 한순간도 꺼질줄 몰랐던 위대한 애국, 애민의 불길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날에 날을 이어 계속되는 일제와의 피어린 격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 이것은 그대로 항일혁명의 간고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였다.

소왕창유격구에서의 가렬처절한 전투와 두차례에 걸치는 힘겨운 북만원정,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제로의 고난의 행군...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전대미문의 간고하고도 준엄한 항일혁명의 로정에는 조선혁명이 영영 주저앉아버릴수도 있는 최악의 고비들도 있었다.

항일전의 가장 어려운 시기의 하나였던 주체24(1935)년 1월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제1차 북만원정의 군사정치적목적을 수행하시고 귀로에 오르시던 그이께서 그만 중병으로 눕게 되시였다.

눈보라와 강추위, 참혹한 식량난이 대원들의 생사를 위협했고 일제의 끈질긴 추격은 계속되였다. 심한 고열과 희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혁명에 대한 책임감, 도탄에 빠진 나라와 인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를 안으시고 노래 《반일전가》를 지어부르시며 결연히 일어나시였다.

일찍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혁명의 선배이시고 스승이기도 하

시였던 아버님과 어머님을 거치른 이국의 광야에 묻으시고 설움에 우는 동생들과 생리별하지 않으면 안되지였던 위대한 수령님.

일제의 탄압과 박해속에 시달리는 조부모님들과 친척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사랑하는 전우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 등 그이께서는 이 모진 고난과 시련,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속에 묻으시고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한 고생을 언제나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망국의 설움과 2중3중의 억압과 착취밑에 짓눌렸던 겨레에게 자기의 무궁한 힘에 대한 자각과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였다.

갈길 몰라 헤메이던 2천만 조선동포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시고 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주시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놀라운 기적적승리를 안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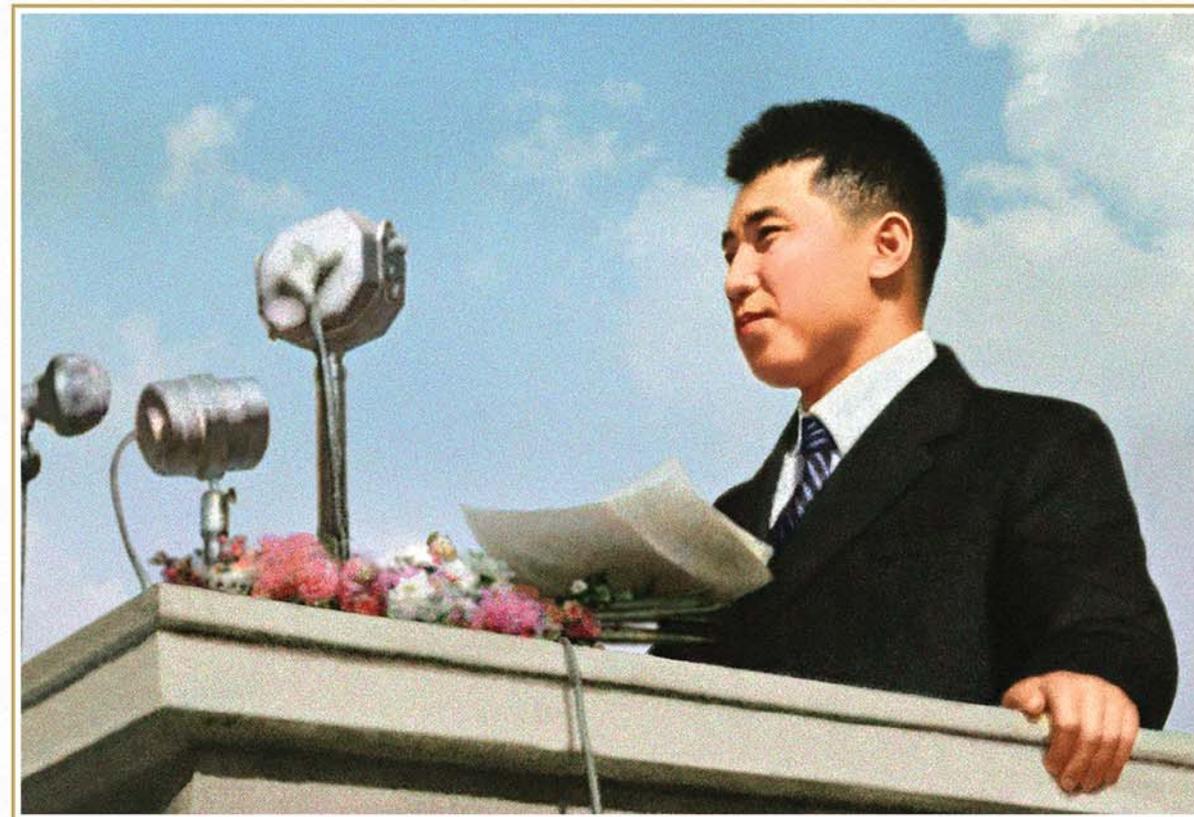
전체 인민을 전민항쟁으로 부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국내에서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호응하여 일제침략자들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렸으며 마침내 일제식민지통치체계는 영원히 끝장나게 되였다.

조국해방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의 압담한 시기 국가적인 후방이나 린접도 없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진정 그이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민족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대통운, 대행운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강대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심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력사는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알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조국인민은 그이의 전승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하고 간고한 전쟁

이었다.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있어서나 군대의 수와 무장장비, 물질경제적잠재력에 있어서 대비조차 되지 않는 침략자들을 상대로 현대전쟁을 치른다는 그자체가 보통상식으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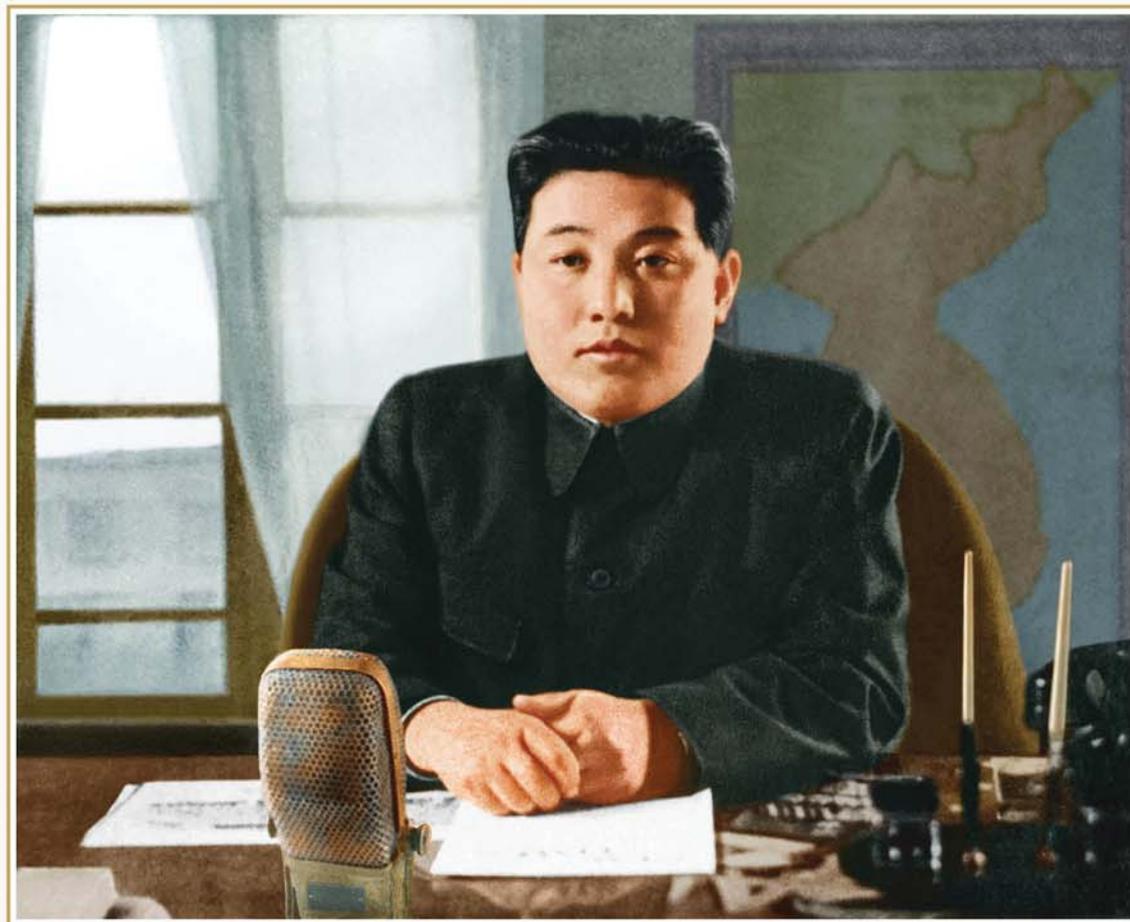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신생조선이 이길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국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인류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였다.

전화의 나날 그이께서는 대담하고 신묘한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고 능숙하게 활용하시였다.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대담한 포위섬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적후제2전선형성과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비롯한 작전과 전법들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것이였다.

그 어느 군사교범에도 없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과 땅크사냥군조운동과 같은 주체전법으로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속강타를 들이대도록 하신 그이의 탁월한 지략앞에 패전을 모른



전체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6월



다던 적들은 전멸하였고 세인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를 모시였기에 조국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군사기, 책략가들이 고안해낸 《공세》들을 여지없이 파탄시켰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드센 배짱과 담력, 락관주의정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전쟁은 무장력의 대결이기에 전에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다.

방대한 침략무력이 쏟아지고 적들이 원자탄사용까지 운운하

던 엄혹한 시기에도 필승의 신념을 지니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담한 공격전을 전개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대학으로 불러주시고 포화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화선음악회를 조직하시는것과 같은 조치들은 그이께서 내리신 대용단이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그이의 담력과 배짱에서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인민군용사들이 단 4문의 포로 적의 5만대군과 맞서 월



조국해방 8돐경축 조선인민군열병식 연단에 오르시여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8월



전승의 광장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열병대요

미도를 3일간이나 지켜내고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으로 일컫는 중순양함을 격침시켰으며 하늘의 제왕마냥 돌아치던 적기들을 쫓떨구는 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할수 있는것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배짱과 담력이 있었기때

문이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들과 군인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정체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과 병사

들 한사람한사람은 귀중한 혁명동지, 전우였다. 전쟁의 담당자는 인민들과 군인들이며 그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는 지론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포화속에서 전사들의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한 기술자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인민군구분대도 파견해주시었으며 병사들을 찾아 위험천만한 전선길에도 나서시였다. 그리고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의 건강을 념려하여 화선휴양소를 내오고 인민들에 대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며 인민들의 뺨감보장을 위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사랑과 믿음은 충성과 위훈을 낳는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은 간고한 전쟁의 3년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마음속에 그리며 싸웠다.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고 육탄으로 땅크를 맞받아나간 영웅들의 최후의 웨침도 《김일성장군 만세!》였다.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신 그이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용사들로 하여금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전승(1953. 7. 27.)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세대와 세기는 바뀌어도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자주, 자립, 자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
 조국의 력사는 자주로 빛나는 력사이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과 존엄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고 그러한 나라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애 관통되어있는 혁명실천이고
 혁명신조였다.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의 수립

지난 세기 90년대초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일본의 한 인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 바로 그무렵은...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소리치며 붕괴되던 때였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평온을 유지하고있다. 무엇때문일까?》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에 그에 대한 답이 있다.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정책상의 모든 문제를 기성의 이론과 남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권문제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이의 자주적신념을 잘 알수 있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에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새형의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다.

해방후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충분한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정권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완수된 후 립시적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방침은 공화국이 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이밖에도 새 조국건설에 관한 로선과 전후 농업협동화방침, 1960년대 경제국방건설병진로선, 1970년대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과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조선혁명고유의 자주적인 혁명리론들이였다.



중대한 선택-경제적자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명줄인 경제건설의 중대한 과제를 두고 두가지 원칙적문제를 내다보시였다.

하나는 남의 원조에 의거해서는 언제 가도 빛진 종의 신세를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이 자주적으로 살아 나가려고 결심한 이상 지배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는 불가피하며 이것을 뚫고나갈 자체의 강력한 물질경제적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그이께서 구상하신 자립적민족경제는 한마디로 말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경제였다.

해방후 나라의 경제는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가진데다가 그것마저 일제가 폐망하면

서 다 파괴해버리였다. 더우기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조선인민은 맨주먹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서야만 하였다. 여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정치군사적공세와 2중3중의 경제봉쇄까지 겹쳐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였다.

수정주의자들이 당의 경제로선을 놓고 비방하면서 《통합경제》를 운운할 때에도 그이께서는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여 그곳 로동계급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우리 경제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로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김종래전기기관차공장에서 새로 만든 내연기관차 《금성》호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4(1975)년 5월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결단을 보여주고있다.

사실 중공업이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방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부문으로서 공업의 토대가 일정하게 있는 나라들에서도 감히 우선적으로 내세우기 주저하는 부문이다. 때문에 경공업과 같이 투자가 적게 드는 부문을 먼저 발전시켜 축적을 강화한 기초우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거나 다른 모든 부문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중공업을 건설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근본이익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익을 중시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강력한 중공업기지들이 창설되고 경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구조가 자체의 자연부원과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경제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2008년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을 때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이 이 무시무시한 동란속에서도 태연하게 있는것은 북조선뿐이라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5월

우선시하신 자위적국방력으로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다, 자위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고수하신 신조였다.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위를 자주적인간의 본성으로, 생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자위적국방건설의 선행을 국가건설 원칙으로 일관하게 견지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력사적인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혁명무력건설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신 후 무력건설사업을 선차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수많은 사업들이 제기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체의 정규무력건설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해방후 3달만에

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치군사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한 평양학원이 나오고 그를 모체로 여러 군종, 병종들의 군사교육기관들이 창설되였다. 정규무력의 핵심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가 조직되고 주체36(1947)년 첫 병기공장이 창설되어 자립적병기공업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해방후 2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정규무력이 창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당면한 전투나 전시생산만이 아니라 전망적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군사간부양성의 종합적기지인 고급군사학교(오늘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와 포병군관학교, 군의군관학교들이 창설되였으며 첫 공장대학이 전쟁시기 국방공업부문에 세워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다그치시였다.

1960년대 까리브해위기때에도 세계정치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1(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시기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땅크와 대포를 용광로에 넣어 폭발적인 경제적비약을 일으킬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전체 인민이 나라의 생존권, 자주권을 위한 국방건설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군사적승리들과 19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를 비롯하여 년대를 이어 반제대결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위의 국방건설사상이 안아온 커다란 승리였다.

이처럼 강한 자주적대로 혁명과 건설을 승

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인담대한 신념과 의지에 의해 오늘 공화국은 주체의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일떠서게 되였다.

언제인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라면 나는 그분이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한것은 참으로 존경받을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이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경



우리 수령님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포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5(1976)년 9월



농민들과 함께 모를 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의 봄이 왔다. 해마다 맞이하는 봄이지만 올해 4월 15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돐이 되는 뜻깊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어서 그이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그리움은 더욱 강렬하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을 찾아 끝없이 걷고걸으신 한평생이었다.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였다. 땅거죽만 겨우 녹은 진펄길로 천천히 움직이던 차가 끝내 한곳에서 멎어서더니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수행원들과 함께 진펄길에 빠진 차를 미시였다. 용을 쓰는 차바퀴에서 튀어나는 진흙탕물이 사정없이 뿌러지건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치한치 차를 밀어가지던 그이의 모습을 조국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이민위천으로 빛나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느라하면 이름모를 두메산촌의 수수한 살림집부엌에 들어서시여 가마뚜껑이며 쌀독까지 열어보신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방현지 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자신께서 집무를 보시는 금수산의사당(당시) 구내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는것을 목격하게 되시였다. 즉시 일군들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 다니기 힘들지만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논두렁길도 걷군 한다고, 동무들이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4월

있다면 쓸데없는 공사를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어느 산간마을의 학교길이라도 하나 더 포장 하자고 하시였다.

언제인가는 김을 매다가 달려온 농민들을 그늘에 이끌어 앉히시고 그늘에야 발에서 땀 흘리며 일한 농민들이 앉아야지, 난 여기가 좋소라고 하시며 피약별이 내리쬐이는 자리에 앉으시여 그들과 농사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에게는 집무를 보시는 시간과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았다.

인민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곧 그이의 집무 시간이였고 그들과 허물없이 마주하고 앉으신 곳이 그이께서 당과 국가의 사업을 보시는 장소였다.

공장과 농촌, 탄광과 광산, 어촌을 비롯한 생산현장, 살림집, 합숙, 학교 등 인민이 있는 모든 곳 지어는 길가의 나무밑이나 농촌살림집의 토방, 달리는 렬차칸에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허물없이 어울리시였다. 농장에 가시면 탈곡장의 마당에 명석을 펴고 농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5(1966)년 2월

민들과 함께 앉으시거나 풀밭에 그냥 앉으시여 농사일을 의논하시였고 공장에 가지여서는 구내의 나무밑에서 로동자들과 빙 둘러앉으시여 생산문제를 토론하시였다.

어느 일요일에 일군들이 그이의 건강을 념려하여 하루만이라도 쉬실것을 말씀올렸을 때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휴식한다는게 뭐 별다른게 아니지, 복잡한 일이 겹쌓였을 때는 한가지 일을 끝내고 새 일감을 잡으면 기분이 새로와지니 그게 다 휴식이요, 그리고 여러 사

람들을 만나서 고심하던 문제를 풀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포착할 때처럼 기쁜 일은 없소, 이것도 다 나에게 좋은 휴식이요, 그러니 따로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소라고 교시하시였다.

외국의 기자들이 그이께 공장과 농촌에 계속 나가있으면 국가사업을 언제 지도하는가고 말씀올린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공장과 농촌을 지도하는것이 곧 국가사업을 지도하는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교시



수도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71(1982)년 11월



김만유병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75(1986)년 6월

하시였다.

80고령에 이르신 때에도 인민에게 보다 유쾌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한달 동안에만도 인민생활과 관련한 회의를 여러 차례나 지도하시였고 생애의 마지막날에도 여러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오늘 조국인민들이 조국의 방방곡곡에 뜨겁게 새겨져있는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발자국을 다 이으면 내 조국의 지도가 되고 지명사전이 되며 그것을 다 펼치면 내 나라의 새력사가 되고 행복넘친 인민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말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를 위해 기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투철한 후대관을 지니고계시었던 그이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일 즐겨워하시였다.

어느해인가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교복과 모자, 신발 등을 일식으로 공급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새옷을 입은 학생들이 보고싶으시여 지방의 한 중학교를 찾으시였다. 자신의 한생애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라고,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이라고 거듭 교시하시면서 온종일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사진찍어주시며 오랜 시간을 보내시였다.

이런분을 어찌 아이들이 스스로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지 않겠는가.

1970년대초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는 《세상에 온 나라의 아이들이 국가수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라고 쓴 이 신문사의 글이 실렸었다. 이 글은 필자가 조선을 방문하던중 실마티모임에 초대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이와 아이들이 한데 어울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쓴 글이였다.

그이를 직접 만나뵈웠던 빼루민족해방전선

위원장이었던 박사 안헬 까스프로는 자기의 회상록에서 《조선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자기의 지도자, 자기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나라 인민들의 그 마음을 다 리해할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나도 아무런 주저나 거리낌없이 그이를 <아버지수령님>이시라 칭송하여 부르게 된다.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음미해보아야 다르게는 대할수 없는 그이 이시다.》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기를 이어가며 조국인민의 영원한 《우리 수령님》으로 높이 칭송받고계신다.

본사기자 한경연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벽동군 동주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6(1957)년 10월

예로부터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은 인간의 미덕이고 위인이 지닌 출중한 품모의 하나로 일러왔다. 그리고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의 전기에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준 실례를 종종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도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그렇듯 뜨겁게 사랑하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은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하고계신 숭고한 후대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출한 위인세계가 어려있다.

오늘도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고 기쁨에 넘쳐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조국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력대로 왕과 같은 특권층들이 온갖 부귀와 향락을 누리는 화려한 건축물을 가리키던 궁전.

하지만 조국에서 궁전이라는 이 말은 곧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노래에도 있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묘향산, 룡악산과 같은 명산들, 송도원과 같은 명승지들과 명당자리마다에 소년단야영소와 소년궁전들이 제일먼저 일떠섰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 깃든 이야기만을 더듬어보아도 가슴뜨겁다.

전후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이께서는 평양시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인 장대재에 아이들의 궁전을 짓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올린 설계도를 보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줄 궁전을 더 크게, 더 훌륭하게 짓자고 하시면서 설계일군들이 예상



청소년학생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75(1986)년 12월

한 건축면적의 6배가 넘는 5만㎡의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하시였다.

그로부터 몇해후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숭고한 뜻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 개관행사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궁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며 기계공장 몇개의 건평에 맞먹는 대단히 큰 건물이라고, 학생소년궁전건설에 든 자금만 하여도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러나 학생소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만 있다면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날 궁전을 돌아보시며 시종 만시름을 잊으신듯 그리도 기뻐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성상 해

쳐오신 간고한 혁명의 길,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려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꽃피워주기 위한것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사업으로 여기신 그이께서는 이 사업에 크나큰 사랑을 돌려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간고한 나날에도,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할 일이 그처럼 많았던 때에도 아이들의 학교부터 세워주시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회의 의정에 연필문제를 올리시였다.

그후 동방에서 처음으로 초등의무교육제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

고 이에 기초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이역만리 일본땅에 사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자녀들에게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보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서 조국에서는 산골마을의 19명 아이들을 위하여 통학렬차가 나오고 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역까지 새로 건설되였으며 외진 섬마을에도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분교가 서고 선생이 아이들을 찾아가며 교육기자재와 선물을 실은 비행기가 날았다.

그뿐이 아니다. 그이께서 학생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사랑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또한 참으로 많고 많다.

그이께서 지방의 수수한 농촌학교에 가시여 몸소 사진기를 드시고 새 교복을 떨쳐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한장한장 찍어주시던 4월의 봄날이며 병원에 입원한 동생을 찾아가는 어린 처녀애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보내시고 바람부는 길가에 오래도록 서계시던 그 추운 겨울날도 있다.

어느 한 학교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학생들의 키에 맞게 층계의 높이와 문손잡이의 높이를 정하도록 가르쳐주시고 그들이 쓰는 연필의 가지수와 교과서의 색깔로부터 책상, 걸상의 높이와 앉음새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듯이 보살펴주신 그이이시였다.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실 때마다 10년은 젊어지는것같다고 하시며 해마다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꼭꼭 보아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곧 조국의 미래에 대한 사랑이였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이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데서 보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판은 이 땅우에 아이들의 행복과 희망이 활짝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락원을 펼치였다.

본사기자 연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에 자리잡고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몸소 야영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야영생들의 생활과 야영활동에 필요한 수많은 선물들도 보내주시였다.

주체49(1960)년 8월 17일 창설당시 250명 수용능력을 가진 송도원중앙소년단야영소는 주체74(1985)년 8월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개칭되였으며 오늘은 1 000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웅장화려한 야영소로 전변되였다.



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현지에서 나오시어 터전을 잡아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평양시학생소년들을 위한 파외교양의 거점이다.

궁전은 주체52(1963)년 9월 30일에 창립되였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예술, 체육 등 모든 부문을 다 포괄하는 각종 연구실들과 활동실이 100여개 있는 궁전에서는 하루 5 0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국토분렬로 당하는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도 제일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겨레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어느 하루도 심려하지 않았을 날, 어느 한시도 편히 쉬신 날이 없으시였다. 그이의 한평생은 그야말로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애국자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한평생이였다.

조국이 통일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같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밀렸던 잠도 푹 자고 마음놓고 휴식도 하겠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지새우신 밤, 걸으신 길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실 때에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그 언제나 괴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시고 조국통일문제로 가슴 불태워오시였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변의 통일외지이

고 철석의 통일신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20성상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이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였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런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온 겨레를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확고부동한 조국통일의지와 천리혜안의 예지,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있던 때에도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2(1993)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에 남기신 친필을 새긴 비

주체61(1972)년 5월초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온 남측대표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

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될 조국통일3대원칙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통일할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



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로부터 두달후인 7월 4일 전체 조선민족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평양과 서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레를 크나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남조선각계는 《통일의 밝은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 《민족분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게 한 력사의 새로운 분기점》 등으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아침출근길에 동아일보사 게시판에는... 환하게 웃고계시는 김일성수상의 초상이 모든 행인들의 발걸음을 못박고있었다. 그들은 꿈인가 하고 착각, 거뭇 눈을 씻고 꿈인가 생시인가 확인, 막혔던 가슴과 덩어리진 한이 풀리는 우렁찬 력사의 쇠바퀴소리, 백두산련봉이 지호시간에서 손저어 부르는것만 같은 벼락같은 환희가 혈관을 질주하기 시작한다.》라고 쓰기까지 하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현명한 방안인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도 내놓으시고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제시하시여 온 겨레에게 통일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오 더욱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 열의에 넘쳐있는 범민족대회 참가자들

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한 해외동포너류기자는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시겠는가고 질문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가슴후련하게 대답을 주시였다.

평양에 온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조국을 통일하려면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남조선에 있는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는가고 의문이 실린 말씀을 올렸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바라는 자본가는 배척하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오 각계각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하였다.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통일위업실현으로 이끌어주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와 고매한 인덕에 의해 최덕신, 최흥희, 문익환, 윤이상을 비롯한 해내외의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였다.

분렬된 조국의 상처, 겨레가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그이이시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박동도 조국통일을 위해, 겨레를 위해 바치시였다.

《김일성
1994. 7. 7.》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문건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이 담겨져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어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동포애적인 구호물자를 보내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9(1980)년 3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양영동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1(1992)년 8월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어

한평생 애국, 애족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열렬한 민족애의 손길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에게도 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해외동포들을 보살피고 위해주시는것을 자신의 성스러운 의무로 간직하시였다.

이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을 위해 새로운 국가예산항목이 마련된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주체46(1957)년 1월 내각전원회의에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국가예산에 새로 등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회의에서 전후복

구건설로 한푼의 자금도 귀한 때 공장을 한두 개 못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한두번으로 그만둘 일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며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민족적애국사업이라고 강조하

시였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그이께서 총련의 민족교육에 남기신 고귀한 유산이며 그 제도와 전통은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언제인가 조선대학교의 졸업반학생들이 조국방문을 오던중 태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비상구조작전을 펼치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제2차 교육원조비로 도교도 고다이러시
한복판에 일떠선 조선대학교 [주체48(1959)년 6월 13일 준공]

여 모두를 무사히 조국에 데려오도록 하시었고 또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심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면서 국가가 손해를 보는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기업활동을 힘자라는것 도와 주신것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그이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이께서는 로씨야와 중국, 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의 곳곳에 사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에게도 많은 정을 기울이고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아무때나 조국을 방문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 조국에 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것을 내외에 천명하게 하시고 그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동포들의 조국방문의 길을 더욱 적극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이 조국에 오면 기념촬영과 연회까지 마련해주시고 아무런 불편없이 방문일정을 보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소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고문인 정일심가족과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양영동,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립민식, 재소조선인로병회 성원들을 비롯하여 조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었다.

주체79(1990)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국을 방문한 이전 소련에서 살고있는 조선인로병들을 반가이 만나주시었다.

그날 그들에게 부인들은 다 잘 있는가, 자녀들은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시며 생활형편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시고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운 그들의 애국적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당시 재소조선인로병회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빈동포에게 지금 83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그러자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강관리용운동기구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손길은 리세호동포에게도 뜨겁게 돌려졌다.

고국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를 해아리시여 인민군장령의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었다.

그는 그이께서 수여해주신 해군소장의 장령복을 입고 눈을 감았다.

재미동포인 조국통일촉진회 회장 김성락과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흥희,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 명망높은 동포음악가 윤이상, 재미동포너류기자 문명자를 비롯하여 많은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진정에 넘치는 동포애에 이끌리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겨레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삶을 빛내였다.

주체70(1981)년 조국을 방문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 김성락목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평양을 못잊어 찾아왔다는것을 아시고는 그의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여 애국지사라고 불러주시며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었다.

그날 목사에게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평생을 지켜온 신자의 도리를 어겨서야 되겠는가 하시며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권고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날 목사의 부친의 반일운동과 미국에서의 그의 애국활동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민족적량심만을 믿어주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은정과 아량에 목사는 깊이 감동되어 늦게야 평양을 찾아온 자신을 자책하였다.

평양을 떠나는 날 스스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우에 가꾸어 놓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낸 위인이십니다.》라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찾아온 목사부부를 크나큰 은정과 믿음으로 대해주시였으며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공적을 평가하시여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수많은 동포들이 해외 곳곳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 힘있게 나서게 되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해외동포들에 대한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시었다.

본사기자 김리정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

자주시대를 빛내이시여



남남협조에 관한 뽀력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 참가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6(1987)년 6월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날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출위인으로, 국제정치사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20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20세기는 인류력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격동적인 세기였다.

지구를 휩쓴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사회주의의

출현,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결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변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시대의 탄생이다.

언제인가 뼈루의 어느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송배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은

로 섬기고 떠받드는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감정은 그 누구의 강요나 도덕적의무감에 의해서 형성되는것도, 윤리적사고의 귀결에 의해 형성되는것도 아니다. 위대한분을 믿고 따르게 하는 마음, 그것은 위대한분이 창시한 진보적사상에 대한 공감과 절대적인 긍정 그리고 위대한분이 인류앞에 이미 이룩하였고 또 이룩하게 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분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적품모와 덕망에 대한 매혹에 원천을 두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조선을 알게 되면서부터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간직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나의 숭배심은 이렇게 자라났다.》라고 썼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진보적인류에게 운명개척의 위력한 사상적무기,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 희망의 등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의 성격과 목적, 사명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세계반제자주력량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이끌어주시었다.

《자주성을 견지하자》,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 《뽀력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 《뽀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 《세계진보적청년들은 단결하여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를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백과전서적인 투쟁강령으로 되었다.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생명력은 력사의 시련속에서 더욱 뚜렷이 검증되는 법이다.

20세기 80년대말-90년대초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느니,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떠들어댔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에 대한 신심을 잃고 투쟁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사회주의를 동경하

던 뽀력불가담나라들도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좌왕우왕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 《이와나미》서점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후에 발표하신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가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큰 손실로 되지만 그것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것,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제국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것으로 될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구현한 리념이기때문에 력사가 전진하고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데 따라 더 큰 견인력을 가지게 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철의 론리로 증명하시었다.

세계는 인류사회발전의 합법칙성, 혁명운동의 진리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명철한 평가와 철의 론리에 접하여 탄복하며 걱정으로 들끓었다.

하기에 당시 세계정치무대에는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워야 한다.》, 《그이는 세계의 폐활량을 조절하고있다.》는 말들이 국제공용어처럼 통용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20세기는 자주의 시대로 자기의 력사적지위를 뚜렷이 할수 있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은 겹쳐드는 력사의 도전을 이겨내며 자기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언제인가 도이쉴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자리에서 이런 칭을 올린적이 있다.

《주석님, 주석님께서 견고계시는 그 길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미래를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께만 의탁한 세계 진보적인류가 올린 간절한 청이기도 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온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개척자, 탁월한 령도자이시었다.

본사기자 김지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보내온 선물들의 일부(국제친선전람관)

매혹과 흠모는 지경을 넘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실뿐 아니라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매혹과 흠모는 지경과 지경을 넘어 끝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20세기의 태양으로 우리러따르는 인류의

마음은 그이께서 받으신 진귀한 선물들과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에도 담겨져있다.

조국의 명산인 묘향산에 자리잡고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의 수많은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을 비롯하여 170여개 나라와 지역의 인사들이 드린 수많은 선물들이 전시보존되어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중국과 이전 소련의 국가수반들이었던 모택동, 쓰딸린과 이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 수상들이 드린 전망차들과 승용차들이 오늘도 옛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있다.

주체44(1955)년 10월 호지명 웰남주석은 웰남에서는 옛날부터 귀한 손님이나 존경하

는분에게 안녕과 장수를 축원하는 뜻에서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선물하는것을 전통적인 풍습으로 전해오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은차그릇일식을 드리였다.

주체58(1969)년 7월 기쁘로스사회당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보로 전해져오는 3 000여년

전의 고대그리스유물인 《자기기름병》과 《자기등잔》에 담았다고 하면서 삼가 선물로 드리였다.

수리아의 한 인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빨럭불가담운동은 우리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3 000여자의 아랍어로 번역하여 형상한 그이의

초상화를, 말리에서는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빛받은 말리땅에도 비쳐 새 생활창조의 길을 밝혀준다것을 형상한 나무조각 《아프리카땅에 휘날리는 주체의 기발》을 올리였다.

여러가지 색깔의 옥돌과 진주로 세계지도를 형상하고 조선지도를 특별히 순금으로 새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세계 수십개 나라와 국제기구 및 단체들에서 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삼가 드리었다.

그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이후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인류의 태양을 못잊어 그리며 삼가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도 있다.

긴 돌공예 《조선은 세계의 중심》, 99마리의 나비들이 모두 평양을 향해 날아드는 모습을 형상한 나비공예 《조선지도》...

진정 끝이 없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랑과 인덕으로 만사람을 감화시키고 매혹시키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칭송과 흠모는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은 물론 서거하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1994.

7. 8.)하신 후 처음으로 맞이한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족장의자를 선물로 드리었다.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주체84(1995)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족장으로 추대하는 성대한 의식에서 우모지 공동체 왕은 《김일성주석각하께 나이지리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태양족장 칭호를 수여해드리는데는 우리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위대한 그이를 옥좌에 직접 모시지 못하였지만 김일성주석은 영원한

이 태양의 옥좌에 앉아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교계실것입니다.》라고 연설하였다.

추대의식이 끝난 후 《우모지의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는 글이 새겨진 그 옥좌는 조선으로 옮겨졌다.

주체92(2003)년 9월 조국을 방문한 프랑스주체사상연구소 직 부위원장은 자기 나라에는 가장 존경하는 스승에게 등불을 형상한 예술작품을 선물로 올리는 풍습이 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 그분은 세계정치

무대에 흔적도 없던 조선을 우뚝 내세워주시었으며 조선의 밝은 빛발이 세계를 빛내이도록 하시였다. 비록 선물이 소박하지만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흠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금속관화 《용감한 자유투사들》을 선물로 올리면서 그이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수령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선물을 드리는것은 자기들의 응당한 도리라고, 선물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세계자주화의 길을 따라 용감하게 전진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모습이 형상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와 인민들로부터 진귀한 선물뿐 아니라 370여개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받으시였다.

그가운데는 이전 소련의 적기훈장과 몽골의 추호바파르 훈장, 인도네시아의 공화국훈장 제1급, بلغ아리아의 게오르기 지미트로브훈장, 적도기네의 대십자독립훈장, 프랑스의

빠리콤문메달, 삐루의 갈랴오 국립종합대학 명예교수칭호, 미국의 켄징톤종합대학 명예국제관계학박사칭호, 베네수엘라 까라보보종합대학리사회 명예성원칭호, 이탈리아 메올로시와 파키스탄 라호르시 명예시민칭호 등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는 지경과 지경을 넘어 세세년년 끝없이 흐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공유일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예술축전

년초부터 조선예술교류협회의 사업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올해 32번째로 진행되게 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세계

의 수많은 나라의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앞을 다투어 참가를 신청해왔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류행병전파상황

으로 이번 축전은 예술단, 예술인들이 공연록화편집물들을 국제통신을 통해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국제예술축전이다.

주체71(198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련환공연 《4. 15경축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친선음악회》로 첫막을 올린 축전은 주체74(1985)년에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으로 명명되어 해마다 진행되어오다가 주체96(2007)년부터는 2년에 한번씩 열리고있다.

축전은 그 규모와 내용, 진행방식에 있어 특색있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발전하였다. 음악, 무용, 교예 등 무대예술의 전반을 포괄하는 대예술축전형식을 갖추었으며 출연자들도 이롭있는 예술단체, 국제콩쿨수상자들을 비롯한 관록있고 재능있는 명배우들은 물론 신진예술인들과 애호가들이 이르기까지 그 수가 대폭 늘어

났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된 주체107(2018)년까지 축전에는 110여개의 나라에서 온 1 400여개의 예술단과 연 1만 6 000여명의 우수한 예술인들이 참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이롭있는 예술단의 명배우들만 하여도 연 2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진행방식에서도 나라별, 단체별, 종류별, 련환공연형식으로 다채롭게 진행되고 여기에 명배우들의 공연과 실내악 공연을 특색있게 배합함으로써

그 예술적수준과 품격을 해마다 높이고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다채로운 국제콩쿨들과 여러 형태의 예술축전들이 진행되고있다.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는 위인칭송의 축전,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전이라는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다른 국제예술축전들과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

축전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치는 축전으로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개막 공연의 첫막을 올리고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들이 이 노래를 지휘하는것이 판례로 되

고있다. 예술인들은 첫번째 지정곡들을 위인칭송의 노래들로 선정하고있으며 직접 칭송의 노래를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는 예술단체와 예술인들도 많다. 잠비아의 전 대통령과 웰남의 전 문화공보체육 및 관광상,

몽골의 이전 문화상과 같이 시인도 작곡가도 아닌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창작하여 축전무대에 올린 위인송가는 무려 수

백편에 달한다. 주체83(199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축전은 끊기지 않았다.

주체84(1995)년 제1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레닌상수상자이며 로련인민배우인 로씨야민속가무단 단장 지끼나



류드밀라 게오르기에브나는 자기가 준비해온 노래 《그이는 가시지 않으셨네》를 격조높이 불렀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도 그리움의 노래, 영생축원의 노래를 불렀다.

그후 축전무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레찬으로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언제인가 축전에 참가하였던 유럽의 이름있는 한 예술단 단장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성대한 개막행사, 화려하고 황홀한 공연무대, 다채로운 축전행사들 모두가 희한하기만 하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내가 본 모든 축전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조선의 봄축전은 순위를 위한 축전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치는 축전, 5대륙의 예술인들이 모두 모여 한가정을 이룬듯싶은 친선단결의 축전이라는데 자기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

오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기를 이어가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아래 친선과 단결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으며 예술기량과 경험을 서로 나누는 중요한 문화예술교류마당으로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 철



수기

45년전의 봄날을 그려볼 때면

우리 안주시 연풍고급중학교는 산골마을학교입니다.

학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오시여 몸소 사진기를 드시고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찍어주신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 후대들도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세월은 많이도 흘러 세대는 바뀌었지만 학교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오늘도 봄날의 꽃향기처럼 교정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체66(1977)년 4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시아이들뿐 아니라 지방아이들도 옷을 잘 입었는가를 한번 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이른아침 우리 학교에 찾아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새옷차림을 하고 줄지어 늘어진 학생들의 모습을 만족한 시선으로 하나하나 살펴 보시였습니다. 옷이 알락달락한것이 곱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학교교원들과 학부형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 교복에 묻은 실밥을 몸소 털어주시고 웨터가 몸에 꼭 맞는가도 헤아려보시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학생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시여 그 학생의 옷차림을 쪽 훑어보시고 자신보다 더 신사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내 60평생에 기쁜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라고,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이라고 하시며 사진까지 찍어주겠다고 하시는데였습니다.

현지도의 바쁘신 길에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시려 사진기를 들고계시는 그이의 모습, 사진의 주인공이 되어 가슴을 활짝 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학생들의 행복한 얼굴.

정말이지 감격적인 화폭들이 교정에 넘쳐났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그늘지면 사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며 바로세워도 주시고 초점이 잘 맞지 않을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허리를 구부리시고 자리를 움직이시며 초점을 바로잡으시기도 하시였습니다.

교원, 학생들의 사진을 한장한장 찍어나가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사진기에서 눈을 떼시더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안경을 벗으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였습니다.

그이의 로고를 생각하여 수행원들과 교원들이 그만두실것을 말씀 올리였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사진을 찍지 못한 학생들이 섭섭해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학생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전체가 다 함께 찍으면 얼굴이 작아질수 있으므로 녀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교원들 따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집체사진에서 작아질 평범한 산골학교학생들의 모습까지 넘려해 주시였습니다.

그후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 연풍땅의 인민들은 그이의 은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학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표식비도 세웠습니다.

45년전 그 봄날, 그이께서 지방의 한 산골마을 학교에 남기신 사랑의 이야기는 학교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안주시 연풍고급중학교 교장 홍춘희

도서 《인민들속에서》

도서 《인민들속에서》는 조국인민들이 늘 애독하는 책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주체51(1962)년에 제1권이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100여권이 출판되었다.

도서에는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과 고매한 품모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의 공장과 농촌, 어촌, 탄광, 광산 등을 찾으시였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국사를 론하고 그들을 이끌어주시였다.

도서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인민군장병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애국렬사유가족들을 비롯하여 그이를 만나뵈온 사람들이 쓴 2 000여건의 회상실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도서에는 농업부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다.

《여섯마리의 메새》로부터 시작하여 《산간벽촌에 찾아오시여》, 《높고 험한 산밭을 몸

소 오르내리시며》,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여주시려고》,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를 비롯하여 매권마다에 나라의 농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심혈을 바쳐오신 그이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보여주는 내용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서 《인민들속에서》 제1권에는 《친아버지의 사랑으로》라는 회상실기가 올라있다. 실기는 전쟁시기에 아버지를, 전후시기에는 어머니를 잃은 최영옥의 4형제생활을 구석구석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며 정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명절날도 함께 계신 그이의 인민적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1980년대 화학공업이 집중되어있는 함경남도에서 공해현상이 없어지지 않고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은 백만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유해가스가 나오는 공장을 없애도록 하신 이야기를 전하는 《공해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할수 없습니다》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이외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소》,

《이제는 제가 아들대신 어머니를 모시겠으니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인민들에게 털끝만한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돌봐드리겠습니다》, 《독립군사령의 유가족도 한푼에 안으시고》 등의 회상실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그려볼수 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님 이야기로 인민의 추억은 더욱 뜨겁다.

잊지 못할 추억으로 깊이 새겨진 그 모든 과거의 영상과 사연들을 인민은 도서 《인민들속에서》에 심혈을 기울여 적어넣었으며 그이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인민에게 주신 정과 열의 세계를 잊을수 없어 앞을 닦아 두어 심장의 붓을 들어 써내고 있다.

흐르는 세월은 류수와도 같아 이 땅의 세대도 바뀌우고있지만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사는 인민의 그리움이 이 땅, 이 하늘을 짙게 채우기에 도서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다.

진정 수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다.

도서 《인민들속에서》는 최고상인 김일성상을 받았다.

본사기자 엄향심

새 무장력의 탄생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사용하신
권총



창건당시에 들었던 기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식이 진행되었다.

이깎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펼쳐 입고 무기를 멘 100여명의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정렬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돌이켜보면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을 선포한 안도현 소사하 무주툰 토기점골등판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선민족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 하였으나 가슴아픈 피의 교훈만 남기였다.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인민 봉기, 로동자, 농민들의 파업투쟁과 소작쟁의,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을 비롯해서 지난 시기의 반일민족해방투쟁들은 강력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였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실패에서 나타난 교훈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도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무장, 총대를 잡고 진정한 혁명군대를 먼저 창건해야 한다는 확고한립장을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카룬회의와 명월구회의 등 여러 회의들에서 항

일무장투쟁로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에 따라 무장대오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였다.

이르는 곳마다 일제의 폭압망으로 뒤덮이고 적들의 야만적인 탄압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상비적혁명무력을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무장대오를 꾸리는데서 사람과 무기를 가장 중요한 필수적요소로 보시였다. 다시말하여 군사정치적으로 준비된 청년들과 실지 적을 쓸어 넣힐수 있는 총대였다.

그이께서는 실천속에서 키워오신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일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

국청년들로 대오를 꾸려나가지였다.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간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버님께서 유산으로 남기고가신 두자루의 권총을 밀천으로 삼아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가지였다.

그이께서는 직접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전투들을 지휘하시였다.

그이의 뒤를 따라 각지에서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밑에 적의 무기를 빼앗거나 자체로 만들어 자신을 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혁명군소조 성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제침략군과 일만군경들, 친일주구들, 반동관료배들의 무기를 빼앗기 위한 희

생적인 투쟁을 벌렸다.

왕청의 한 로인이 밥상다리로 만든 가짜권총을 들고 경찰과 자위단원들을 위협하여 무기를 빼앗아 적위대에 보내주었고 또 어떤 고장에서는 녀성들이 빨래방치나 곤봉으로 군경들을 까눕히고 무기를 탈취하였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때 생겨난 일화들이다.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어졌다.

처음 야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칼이나 창과 같은것을 만들던 인민들은 병기창을 꾸리고 권총과 작탄을 만들었다.

망국민의 신세를 한탄하며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그것을 숙

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소박한 인민대중은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투쟁의 길에 들어선것이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조선인민혁명군은 마침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총대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고 전통이 있어 계승도 있다.

해방후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정구적혁명무력으로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그후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침

략자들을 물리침으로써 강군의 위용을 떨치였다.

세월을 넘어, 년대를 이어 조선인민군은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책동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오늘 공화국이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위적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를수 있게 된것은 바로 위대한 령장들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90년전 새 무장력의 탄생, 진정 그날의 창건식은 오늘 후대들에게 강위력한 군력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리정원



조선인민혁명군이 습격파괴한 일제의 군용렬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할무쌍한 군사행동에 대한 당시의 자료

멸사복무를 당풍으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당풍이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인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당풍으로 확립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래를 뚜렷이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당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가 라고 하시였다.

그후에 있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제4차전원회의...

력사적인 당대회들과 회의의정들에서 하나로 관통되고 맥박친것은 오직 위대한 우리 인민의 리익과 복리를 위한것이였다.

그 소식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비상한 자각

과 각오를 불러일으켰으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사업하는 기풍이 전당에 더욱 차넘치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당안에는 주체의 인민관이 들어차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기풍이 확립되었으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구호가 당사업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였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시기에 인민을 위한 창조사업이 더 거창하게 벌어지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멸사복무기풍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시한 민족사적사변들,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공장들과 거리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

현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사업의 철칙으로 삼으며 사회의 재부를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도록 한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이고도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몇년간 당의 강화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의 비약과 전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이 전력을 투하하는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에 달려나간 최정애수도당원사단은 70여일간의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뚜렷한 한페이지를 장식할 영웅신화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당중앙의 숭고한 구상을 한목숨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실현할 결사의 맹세로 심장의 고향 끓이때 자연의 광란이 휩쓸던 동해지구에 선경의 새 마을들을 희한하게 일떠세운 1만 2 000명의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당풍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큰불피해로 집과 가산을 잃은 은파군인민들은 군당위원회청사에서 립시로 생활하였다.

몇년전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은 자신의 둘도 없는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하시었다.

이런 숭고한 뜻으로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과 온 나라에 차 넘치도록 이끄시었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 가시여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젓갈가공품들이 팡팡 쏟아지도록 함으로써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책들이 현실에서 은이 나게 하고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당부하시었다.

보건산소공장에 가시여서도 이 공장에는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집약되어있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자욱자욱에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점짜리만이 있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신 사실들, 인민들의 리익이 실현될 때 제일 기뻐하시며 멸사복무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신 이야기들이 무수히 깃들여있다.

삼지연시건설장을 한해동안에만도 여러 차례 찾으시었고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려주시기 위해 거둬 현지를 찾아 먼길을 달려가시였으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것을 비롯하여 그이의 자욱은 조국땅 곳곳에 어리어있다.

그이께서 것처럼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신 멸



려명거리의 아침

사복무의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려는 불같은 열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어떤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이 한마디가 말해주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사생결단으로 지켜야 할 목숨같은 존재로, 삶의 전부로 여기시며 멸사복무의 려정을 이어가시고있다.

개성시에 악성비루스가 들어올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을 때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지원할데 대한 긴급대책을 세워주신데 이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큰 물피해현장에까지 몸소 찾아가신 사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이 이 비바람속에서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함경남도 태풍피해현장으로 지체없이 달려가신 사실, 그 피해현장에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한자한자 쓰신 공개서한의 글발...

그이의 위민헌신은 일심단결이 하나의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가장 공고한 일심일체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질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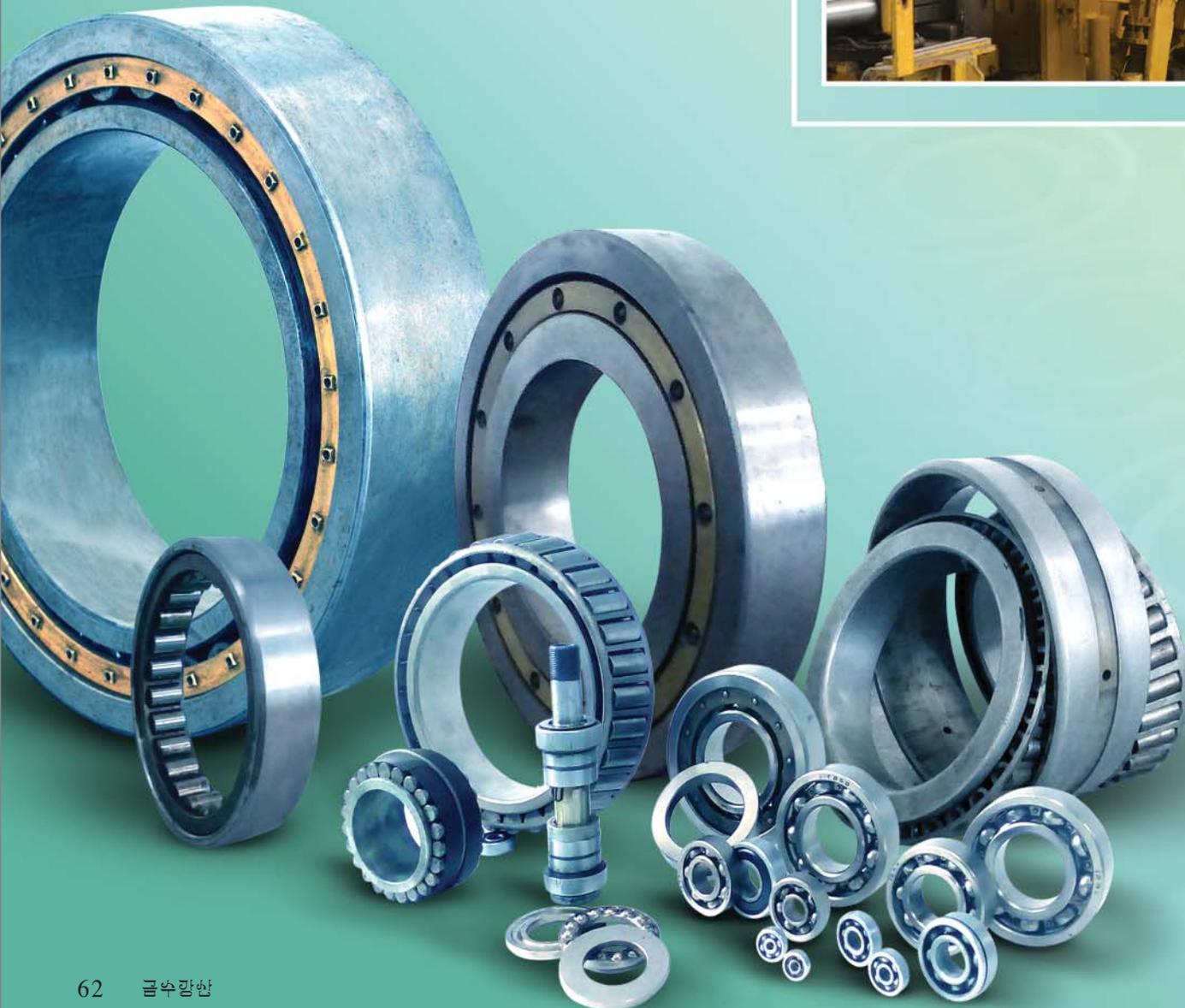
인민이 영원하듯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은 영원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을 이어가는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곳곳에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일떠섰다.

베어링생산자들



룡성베어링공장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각종 규격의 베어링들을 생산보장하는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최근 공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생산장성의 중요고리로 틀어쥐고 추진시키고있다.

이러한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쇠팅을 비롯한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리용하여 베어링강을 생산할수 있는 전기슬라크용해공정을 확립한것이다.

전기슬라크용해공정이 세워지게 됨으로써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쇠팅들도 재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되었고 자재와 자금도 절약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용해공정에 자동조종체계를 도입하여 생산되는

베어링강의 질적지표를 높이고있다.

용해조작을 비롯한 일부 요소들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합심하여 빠른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공장에서는 일반강을 리용하여 만든 베어링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진전을 가져오고있다.

일반적으로 일반강을 탄질화하면 저속회전기계에 쓸수 있는 베어링을 생산할수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 직경이 작은 베어링을 비롯하여 탄질화한 강으로 생산하는 베어링의 가지수는 얼마 안되었다.

공장에서는 이 문제를 대중적기술혁신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어떤 규격의 베어링도 다 높은 수준에서 생산할수 있게 되

었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규격의 탄질화된 베어링들은 철도운수,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장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의 기술집단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베어링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생산하는 한편 그 가지수를 부단히 늘여나가고있다. 그리고 연마석을 비롯한 중요자재들도 개발생산함으로써 베어링중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이룩한 생산토대에 기초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평양 《국제부녀절50주년》 유치원

평양시의 중구역 중성동에는 평양 《국제부녀절50주년》유치원이 자리잡고있다.

유치원은 녀성들의 사회활동과 어린이들의 통학에 편리하게 일일 및 주유치원으로 운영되고있다.

살림집구역에 자리잡은 유치원은 2층으로 된 크지 않은 건물이다. 유치원이 세워진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내외부는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만큼 훌륭히 꾸려져있다.

마당에는 꽃수레를 끄는 날

개달린 롱마며 장수힘을 뽑내는 꿈,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령리한 너구리 등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동물들의 조각상이 키높은 나무와 푸른 잔디밭, 향기풍기는 화초들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도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교양원들은 우리말, 셈세기, 그림그리기교육을 기본으로 하



평양 《국제부녀절50주년》유치원은 일일 및 주유치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교육교양과 지능개발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곳 교양원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유치원에서는 음악적소질이 뛰어나 TV무대에 출연하거나 전국적으로 진행된 소묘축전들에서 상장과 메달을 받는 어린이들이 해마다 배출되고있다.

면서 어린이들의 지적발전에 필요한 바둑과 주산교육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재능있는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어 그들의 소질에 맞게 교육하고있다. 하여 유치원에서는 셈세기, 소묘, 그림그리기, 주산, 피아노 연주, 무용 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어린이들의 특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방법들을 착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 대다수의 교양원들이 우수한 모범교수자들로 되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신혜련원장은 《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을 위해 도시와 공장, 농촌, 어촌 등 곳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어린이들의 교

육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으며 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하기에 여성들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없이 일터에서 창조적로동을 하고있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치원에서 제일 흥성거리는 날은 매주 토요일저녁이다.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들과 함께 유치원문을 나서는 아이들, 어머니와 선생님 앞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재간을 펼쳐보이는 아이들, 유치원을 떠날줄 모르고 여러가지 유희시설을 타는 아이들.

이런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한껏 어려있다.

《며칠만에 유치원에 와보니 우리 아이가 그동안 또 몰라보게 큰것만 같다. 더우기 부모도 미처 몰랐던 자식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키워주는 교양원들을 대할 때마다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라고 엄춘애녀성은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민족의상제작가들

대박산무역회사 민족의상제작실의 조선옷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이곳의 조선옷들은 어느것이나 독특한 미를 가지고있어 결혼식옷을 찾는 신랑신부들은 물론이고 무대에 나서는 예술인들속에서도 인기가 높다.

반복과 유사성을 피하면서 민족옷의 모든 요소들을 손색없이 형상해냄으로써 제작실은 각이한 손님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있다.

제품에 대한 평가는 곧 이곳 제작집단에 대한 평가로 된다.

제작실의 성원들은 모두가 창작가들이다.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10여년간의

창작년한을 가지고있다.

고유한 민족적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옷을 창안제작하고있는 이들은 지난 시기 전국조선옷전시회들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창작가들은 다 자기나름의 특기를 가지고 있다.

론문 《조선옷무늬형상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학계의 인정을 받은 실장 리경옥은 조선옷무늬창작에서 남다른 재기를 가지고있다.

기발한 착상과 재치있는 묘사는 그의 장점이다.

언제인가 한 예술단체의 무대의상을 창작할



조국의 조선옷점들은 봄철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기를 띤다.

이곳 제작실도 화창한 봄계절에 어울리는여러가지 조선옷제작을 의뢰하는 주문자들이 끊어질줄 모른다.

때 그는 단체의 특성과 성악가들의 개성을 고려하여 옷의 무늬를 밤하늘의 은하수로 형상하였는데 예술인들뿐 아니라 조선옷전문가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참신하고 독특한 무늬형상을 통해 조선옷의 전통미와 시대성, 유행미를 살리는것은 그의 오랜 창작적견해이다.

개별적인 창작가들의 개성 또한 뚜렷하다.

최성숙은 여러가지 천들의 특성에 따르는 옷가공기술이 뛰어나고 방수옥은 색배합의 특이한 묘기로 조선옷의 전반양상을 잘 살려내고있으며 김신향은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수예기법으로 조선옷의 세련된 품위를 더욱 돋우고있다.

창작가들은 창작적기량도 높지만 설계와 재단,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들에 정통하

고있다.

다방면적인 능력은 조선옷제작에서 각자의 창작적개성을 적극 발휘하게 하고있다.

이렇게 제작된 조선옷들은 제품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 첫날옷을 주문봉사받았던 한 신부는 《은근하면서도 우아한감을 주는 색배합과 세련된 무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미는 우리 녀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였다.

민족성을 대표하는 조선옷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어야 한다는것이 이곳 제작가들의 창작기준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독특한 건축형식을 갖추고 서 있는 청류관은 수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는 대중급양봉사기지이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청류관은 연건평이 14 000여㎡이며 실내와 야외에 1 600여석의 봉사능력을 갖추고있을뿐 아니라 13개의 주방에서 100여

가지의 각종 요리들을 봉사하고있어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양랭면으로 이름높은 육류관과 달리 청류관에서는 평

조선속담

떡과 관련한 속담

-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무슨 음식이나 먹어본 사람이라야 더 잘 먹는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리력이 난 사람일수록 더 잘 함》을 이르는 말.
-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남에게 보내는 떡개가 커야 그에게서 자기에게 보내오는 떡개도 크기마련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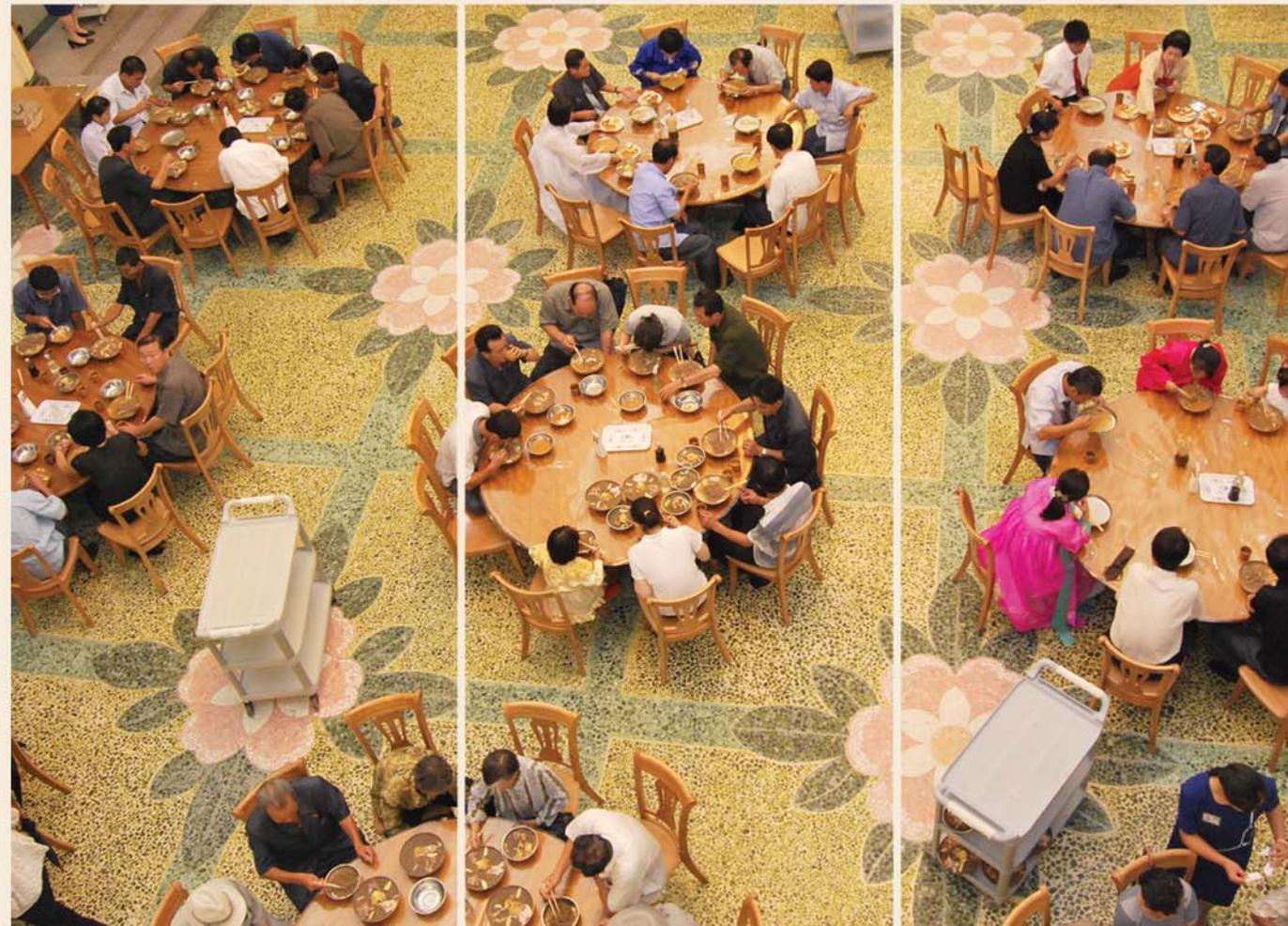
- 해야 남도 자기를 후하게 대해준다는것》을 이르는 말.
 - 남의 떡이 커보인다
꼭같은 떡이라도 남이 가진 떡이 더 커보이는 법이라는 뜻으로 《제것보다 남의것이 더 많아보이거나 좋아보인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 * *

양랭면뿐 아니라 불고기, 신선로, 전골, 룡두지짐, 수정과, 막걸리와 같은 여러가지 민족음식들도 봉사하고있다. 청류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것은 평양랭면과 룡두지짐이다.

청류관의 평양랭면과 룡두지짐이 손님들의 인정을 받게 된것은 지난 40년간 이곳 룡리사들이 인민들의 식생활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룡리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기 때문이다.

청류관에는 룡리부문의 박사과 공훈료리사들이 있다. 이곳 룡리사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래양질료리축전과 광명성질료리기술경연을 비롯하여 여러 전시회, 경연들에서 특등, 1등을 쟁취하였다.

청금란을 비롯한 청류관의 룡리사들은 평양랭면의 육수물의 맛을 살리기 위해 육수물재료의 선도와 배합, 끓이기방법, 식히기 등에서 더 좋은 조리방법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매운 맛과 함께 감칠맛이 돌수 있게 양념장도 잘 만들고있다.





청류관에서 봉사하고있는
료리들의 일부



평양랭면뿐만아니라 리노작
용과 염증해소, 해독작용이
우월하여 우리 민족이 오래전
부터 즐겨 먹어온 룡두지짐봉
사도 잘하고있다.

20대의 젊은 룡리사 김수
향이 지진 룡두지짐은 고소한
그 냄새로 하여 먹기 전부터
군침이 나올 정도이다. 전통
적인 방법대로 돼지기름을 두

르고 가운데 돼지비계를 박아
지진 룡두지짐은 기름기가 돌
고 노르끄레하며 따끈따끈하
여 누구나 지짐을 한입 떼어
보자마자 그 맛에 절로 끌려
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평양랭면과 룡두
지짐뿐 아니라 신선로, 김치,
썩떡 등 그 어느 민족음식 할

것없이 그 맛과 봉사수준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청류관을 찾는 손님들은 이
구동성으로 그들의 친절성에
《음식맛이 별맛입니다. 또
오겠습니다.》라는 말로 감사
의 뜻을 표시하곤 한다.

글 봉사기자 러 해
사진 봉사기자 리영철

야 화

황희와 농부

조선봉건왕조시기 령의정
의 벼슬까지 한바 있는 황희
라는 사람이 적성에서 훈도
벼슬을 하고있었다.

어느해 봄날 황희는 불일
이 있어 개성으로 가던 길에
밭머리의 정자나무아래에서
쉬게 되었다.

이때 한 늙은 농부가 방
금 밭을 갈던 살진 누렁소
와 검정소의 연장을 벗기고
그 나무아래에서 풀을 뜯게
하였다.

살진 두마리의 소를 대견
하게 보고있던 황희는 농부
에게 말을 걸었다.

《로인님은 소를 잘 거두
었구려. 두마리가 저렇게 다

살지고 건강하니 밭을 가는
힘에서도 역시 차이가 없겠
지요?》

그러자 로인은 소를 힐끔
힐끔 돌아보면서 황희의 결
으로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소곤거리었다.

《왜 없겠나요? 소도 사
람과 같이 됴됨이 달라 힘
쓰는데서 저 누렁소가 낮고
검정소는 좀 못하옵니다.》

《예?》

황희는 농부의 행동거지
가 더 이상스러웠다.

《아니 로인께서는 어찌
하여 소를 그렇게 꺼려하며
귀속말까지 하시오?》

《학식이 높으신분같은데

그것도 모르시우? 하하...》
농부는 웃고나서 말을 이
었다.

《집승이 비록 사람의 말
은 모른다 해도 좋다 나쁘다
는 말은 알아듣는답니다. 만
일 제가 남만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면 불평스러운 마음이
어찌 생겨나지 않겠소이까?》

농부의 말에 감동된 황희
는 그날부터 이 말을 깊이
명심하였다고 한다.

황희가 그후 사람들을 신
중히 대하면서 겸허하고 관
후한 도량을 지니고 살수 있
었던것은 바로 농부의 말을
들은 때부터이라고 한다.

* * *

상 식

륙화석포

륙화석포는 둥근 돌탄을 곡사로 발사하는
포로서 고려말기에 사용되었다.

이 포는 발사할 때 불꽃이 여섯가지 색갈
을 낸다고 하여 륜화석포라고 하였다.

발사시 붉은색, 누른색, 풀색, 푸른색,
람색 및 보라색(또는 감색)의 불꽃들이 동
시에 날리었다.

륙화석포는 1032년과 1122년-1127년에
많이 생산되어 전국의 요새마다에 배치되었
는데 번개와 우뢰소리를 갑자기 내는 석포
라는 뜻에서 퇴등석포라고도 불리웠다.

력사고전 《총통등록》에 의하면 이 륜화
석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총통완

구라고도 하였는데 아구리와 몸체 두 부분
으로 되어있다.

륙화석포는 발사각과 방위각에 맞게 고
정한 후에 곡사사격을 진행하게 되어있다.

조국의 자연지리적조건에서 포를 힘들
지 않게 운반하고 쉽게 다룰수 있게 조립
식구조를 갖추고있는 륜화석포는 고려시기
까지 동으로 주도되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
에는 철로 주도되어 외적과의 싸움에 리용
되었다.

륙화석포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
주는 창조물들중의 하나이다.

* * *

애학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기능 진단과 의사 리명권은 근 40년간 초음파진단설비를 다루어 오고 있다.

그의 나이는 63살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업 의욕이 점차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는 여태껏 자기가 하는 일에서 권태감이나 지루감과 같은 이여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자기 직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우리와 자리를 같이한 그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민족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평소에 배구를 즐겨한 나는 체육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나는 체육인이 아니라 의사가 될 것을 희망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 도쿄의 어느 한 조선인부락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해발고가 령이었다. 조수로 바다물이 밀려들어올 때면 집집마다 오수가 거꾸로 올라와 악취가 풍겨나곤 하였다. 일본당국에서는 이런 한심한 지역에 조선사람들을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언제나 민족옷을 입고 조선 노래를 불렀으며 춤도 추면서 화목하게 살았다.

그곳에는 성인학교도 있었다. 학교를 세운 사람은 리명권의 아버지였고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성인학교를 세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련이어 조선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어머니는 저녁마다 성인학교에서 조선글을 가르쳤다.

그후 아버지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육부 시학을 거쳐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의학분과 분과장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교원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비록 이역땅에서 살아도 조선민족의 넋과 정신을 안고 애국으로 삶을 불태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교양을 받으며 대바르게 성장하였다.

16살때 조국의 품에 안긴 그는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졸업후에는 종양연구소 기능 진단과 의사로 림상실천의 첫 걸음을 떼었다. 그는 자기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는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에 살 때 우리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놓는 비인간적인 사회현실에 대해 체험하며 살았었지.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우리 조국은 얼마나 좋은 사회이냐. 너는 이 제도를 더욱 빛내기 위해 인간생명의 기사답게 자기가 하는 일에 진정을 다 바쳐야 한다.》

리명권은 아버지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수십년세월 언제나 한모습으로 환자치료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리명권의 실력은 하루가 다

르게 높아갔고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도 늘어났다. 언제인가 평천구역에 사는 한 중년남성이 그를 찾아왔다. 환자는 담낭부위가 이따금 쿡쿡 찌시고 소화기능이 잘 안되면서도 메스껍고 황달이 있다고 그에게 호소하였다. 환자의 병력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담낭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는 화면에 비쳐지는 환자의 위와 담낭, 간 등 소화기관들을 간간히 살펴보았다. 담낭의 담도부위에서 어두운 색조가 보이였다. 하지만 남들처럼 그것을 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 그는 어두운 색조가 갑자기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가 비꼰다. 한것은 환자의 담도부위에 회충이 있을뿐 암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환자는 병을 깨끗이 털었다는 기쁜 소식을 리명권에게 먼저 전해왔다.

이렇게 그가 오진률을 최대한 낮출수 있는 비결은 자기 직업의 중요성을 언제나 자각하고 높은 실력과 수십년간 쌓아온 치료경험을 활용한데 있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애착, 그것은 어제오늘에 생겨난 것이 아니였다.

일본에서 극심한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기면서부터 느낀 사회주



의제도의 고마움은 그로 하여금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하게 하였다.

언제인가 리명권이 다른 나라에 의료대표단 성원으로 파견되어 간적이 있었다. 그때 그 나라 의사들은 리명권에게 《우리 나라에서 당신과 같은 보배손, 보배눈을 가진 의사들은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리명권은 그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고 있는 조선에서는 의사들이 자기 하나의 명예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일하고있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조선의학협회 초음파위원회 위원장, 보건성 화상진단연구중심 위원회의 중임도 맡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초음파검진을 진행하고있는 리명권



가정에서



통일주제작곡가 윤이상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이 곡은 나의 광심에서 참을수 없어 터져 나온 곡이다.

이것으로써 《광주여 영원히》와 함께 나는 작곡가로서 우리 민족에게 바치는 나의 절절한 호소와 충정을 표시한것이다.

윤이상

도이칠란드의 킬문화상(1971년), 베를린 음악대학 명예교수(1972년), 튀빙겐대학 명예철학박사(1985년) 등의 학직과 학위로 세계음악계에 명성을 날린 해외동포 윤이상선생(1917. 9. 17-1995. 11. 4.)은 조국인민들속에 통일주제작곡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실내관현악 《락양》(1962년),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곡 《영상》(1968년), 가극 《심청》(1972년), 첼로협주곡(1976년),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1981년),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1987년), 교향시곡 《화염속의 천사》(1994년) 등 선생은 생전에 세련되고 원숙한 작곡기법으로 겨레의 민주정신과 념원이 반영된 100여편의 음악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작품들은 오늘도 조국인민들속에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으며 민족의 념을 안고 통일위업에 바쳐진 선생의 창작활동과 생애에 대해 감회롭게 추억하게 한다.

1917년 9월 17일 남조선 경상남도 총무시의 한 선비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17살때부터 10년간 경성과 해외에서 고학으로 첼로, 음악리론, 작곡 등을 배웠다.

주체45(1956)년부터 2년간 프랑스와 도이칠란드에서 음악리론과 작곡을 배운 그는 오래동안 도이칠란드에서 음악대학의 교수, 작곡가로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이시기 그의 작품들은 많은 음악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두차례에 걸쳐 국제현대음악축전에 입선하여 세계현대음악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나날에 그는 자기의 음악에 전통적인 조선민족고전음악을 구현하기 위해 모색하였다.

그는 동양음악의 정서를 서양의 음악표현수단과 기법으로 형상한 자기식의 독특한 현대음악을 창조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뉴대를 이어주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현대음악》의 창작기법우에서 민족음악을 발전시킨 그의 창작적기량은 세계음악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후에도 그는 조선의 력사와 음악,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을 탐방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그의 창작활동을 새롭게 추동한 계기가 있었다.

일찍부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선생은 1967년 6월 이른바 동부베를린사건으로 랍치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가 2년간 옥중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창작적견해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예술가는 정치와 유리된 순수한 예술을 창조하는것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견해에 중지부를 찍고 그 어떤 예술가이든 정치를 떠난 예술의 창조도 존재도 있을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견해가 그의 뇌리를 쳤다.

그의 사상적견해는 그대로 작품에 반영되었다.

오보에독주곡 《괴리》, 첼로협주곡, 알토 플루트독주곡 《살로모》 등에서는 그가 옥중에서 겪었던 고초와 평화의 념원을 담았고 합창곡 《밤이여 지새라》, 가극 《심청》과 같

은 성악작품들에서는 남녘인민들의 비참상을 절절하게 반영하였다.

그후 1980년 남조선에서 일어난 광주인민봉기는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창작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는 온 심혈을 기울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피타게 절규하며 파쑈독재의 아성을 맞받아 거연히 일떠섰던 광주인민의 념을 담아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광주인민봉기 1돛을 계기로 창작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는 주체70(1981)년 5월 8일 도이칠란드의 쾰른시방송국 관현악단의 첫 연주로 해외교포들은 물론 유럽음악계와 사회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다음해 8월에는 평양에서 첫선을 보이었다.

이국에서 창작활동을 벌리던 나날에 윤이상 선생은 항상 고국을 그리었으며 분단된 겨레의 비운을 두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두고 가슴저리게 통탄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작품들에 반영하였다.

주체76(1987)년 그는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숙망을 폭넓게 구가한 교성곡 《나의 땅,



창작토론을 하고있는 윤이상

나의 민족이여》를 완성하여 내놓았다.
그는 작품의 창작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왜 나는 이 교성곡을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로 지었는가. 우리 땅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다. 우리 땅은 아무도 침범할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민족은 갈라질수가 없다. 단합, 화해, 자주, 평등, 평화, 이런 귀중한 요소들이 우리 민족앞에 주어진 지대한 과업이고 목표이며 그때문에 《나의 민족이여》라고 호소형으로 표현하였다.

교성곡은 통일대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작곡가의 굳센 신념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예술적인 높은 기교속에서 형성되었다.

윤이상선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애국적인 음악가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부부를 만나주시고 해외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린 그를 민족의 재간동이, 예술계의 보배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리시면서 두해전에 그가 조국에 가지고온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들어보았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이미전에 작곡한 가요들을 모두 발굴하도록 해주시고 초기작품들과 《민주련합가》, 《락동강》 등 가요들로 윤이상음악회를 조직하도록 해주시었다.

주체80(1991)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본부 의장으로 활동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성업에 심신을 다 바치었다.

그는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발기하고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일음악회가 조국력사에 뜻깊은 장을 기록할 민족의 축전으로 되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선생은 조국통일상과 국기훈장 제1급 등을 받았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철



조국에서는 윤이상의 이름으로 된 음악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주체108(2019)년 촬영

자강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강계 망미정

강계망미정은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강계읍성의 남쪽장대의 이름이다.

망미정은 강계읍성을 쌓으면서 1436년에 처음 세워지고 1837년에 고쳐지었다.

망미정은 강계시의 서쪽을 감돌아흐르는 장자강기슭의 벼랑우에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이곳은 전시에 군사지휘처로 리용되었고 평시에는 감시소로도 되었다.

여기에 오르면 벼랑밑으로 장자강의 물결이 굽이쳐흐르고 앞으로는 강계일대의 풍경이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온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수 있다고 하여 망미정이란 이름을 달았다.

망미정은 우뚝 솟은 바위우에 높이 90cm의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세운 루정으로서 주변환경

과 조화를 이루고있다. 강계망미정은 당대의 우수한 건축술과 우리 인민의 투쟁이야기를 전하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